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1월 12일(주일) 제1171호



활짝 웃고 있는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

거북이처럼 끝까지 함께 가자!

산마루교회와 함께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개최
750여 명 참석 ... 참가비 및 후원금 노숙인 자활 지원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면서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11일(토) 오전 9시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총 750여 명이 참가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은 후원을 통해서 동참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비 및 후원금은 산마루교회 노숙인 목욕 빨래방과 자활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된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동작대교 복단광장을 출발해 한강철교 아래 공터와 마포대교

를 지나 마포나루터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5km 걷기로 참석한 이찬우 씨는 "즐겁게 운동도 하고 하나님도 아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고 했고, 김경실 성도(SNS공동체)는 "좋은 일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산마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노숙인 정상기씨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끝까지 걷고 달리자'는 의미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2012년 가을 산마루해맞이대학(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에서 처음 개최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노숙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었고 올해 다시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개최했다. 꼭 5년만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사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이주연 목사는 "앞으로도 부한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어떤 교파든 상관없이 천천히 끝까지 함께 걷고 뛰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는 지난해 1월부터 동역하고 있다. 노숙인 시설 마련을 위한 헌금 전달, 저녁식사 섬김, 음악회 후원, 노숙인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 청소하기 등을 섬기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완제리 자매를 도와주세요”

수술비 및 향후 진료비 절실

사회선교본부에서 케냐에서 온 완제리(44세, 가명) 자매를 도와줄 후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구강암 수술비 및 향후 항암치료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완제리 자매는 2015년 3월 한국에 온 이주민이다. 올해 9월경 오른쪽 어금니 통증으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아래턱에서 구강암이 발견되었다. 구강암세포가 턱 주변 뼈까지 녹이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 11월 10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소득이 전혀 없어서 수술비 및 향후 진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항암치료까지 하는데 약 2,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완제리 자매는 송인선 다락방장(부천 온누리교회)이 돌보고 있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후원: 하나은행 573-910008-39804

/ 김영선 기자

수능온종일기도회 11월 16일 양재 사랑홀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차세대지역본부는 11월 16일(목)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온종일기도회'를 개최한다. 수능온종일기도회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1월 6일부터 진행된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15일)까지 이어진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홀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47

공동의회

일시: 11월 19일
장소: 3부 예배 후 서빙고 본당

임직예배

일시: 11월 25일 오후 4시
장소: 서빙고 본당

장로장립식

일시: 12월 2일 오후 4시
장소: 서빙고 본당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 헌물 모집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 나누는 행복, 커지는 사랑을 만끽하는 뜻 깊은 날이다.

올해도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공동체, 순, 다락방, 부서별로 쌀, 과일 등의 헌물을 모집한다. 성도들이 귀하게 모아 준 추수감

사절 헌물은 11월 19일(주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과 미자립교회,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본관 1층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추수감사절 헌물을 받는다. 부천 18일 오후 6시까지 본당, 수원 18일까지 본당, 대전 18일 오후 4시까지 6층 본당, 남양주 18일 오후 2시까지 본

당, 평택 19일 오전 9시까지 2층 목회지원실, 인천 18일까지 컨벤시아 2층 본당, 강동 18일까지 12층 본당 앞 로비, 양지 18일 오후 6시까지 감사무엘홀 본당에서 헌물을 받는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이 한 해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다. 1621년 신앙박해를 받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하고 3일 동안 열린 축제에서 기원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04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켰다.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숙 형제들에겐, 샤워기 물소리가 福音입니다

노숙인 위한 ‘목욕빨래방’ 여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
온누리교회·배우 김혜자 등 후원
“단순히 씻고 빨래하는 곳 아닌
‘영적 복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이 샤워 물소리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60)는 샤워 부스를 보여주며 말했다. 가로세로 110cm, 높이 2m짜리 샤워 부스 3개는 각각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이다. 바로 앞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2대씩 놓여 있었다. 옆방엔 요가 매트리스가 깔렸고, 출구 쪽엔 상담실이 마련됐다. 이 교회의 ‘목욕빨래방’이다. 지난주 공사가 끝난 이 공간에선 ‘새집 증후군’ 같은 페인트와 자재 냄새가 없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덕택이다.

2006년 현재의 상가 건물로 이사해온 산마루교회는 11년째 서울역 노숙인을 돌보고 있다. 교인 200명 중 절반이 노숙인이다. 목욕빨래방은 이 교회의 10년 넘는 숙원 사업이다.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다. 그동안 이 교회는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 부암동과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농사짓기, 인문학 강좌인 ‘해맞이 대학’, 매년 가을 노숙인이 포함된 합창단의 음악회, 작년 추석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아침 서울역 청소 등이 그 일환이었다.

목욕과 빨래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였다. 외모와 냄새는 노숙인을 스스로 주눅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



사진=조선일보 제공.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가 노숙인 교인을 위한 목욕빨래방 내 샤워 부스에 섰다. 샤워 부스는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목사는 “형제(노숙인)들에게 ‘가정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물어보면 1번이 ‘샤워’”라고 했다.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목욕하는 동안 평안, 안온,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2013년 6월부터 노숙인들 스스로 헌금을 시작했다. 500원, 1000원씩 헌금했고, 음악회를 통해 모금도 했다. 티끌을 모았지만 뛰는 집값을 따라가기엔 버거웠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 작년 초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가 도움에 나선 것. 온누리교회는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을 도와오던 중 서울역 부근에 노숙인을 위한 목욕 시설을 장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하던 중 산마루교회가 이미 노숙인을 위한 목욕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산마루교회를 돕기로 한 것. 온누리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이 넘는 헌금을 모아줬다. 소식을 들은 탤런트 김혜자씨

와 익명의 기부자들이 나서 모금액은 4억원이 넘었다. 마침 산마루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 2층의 바로 옆 가게 2칸 30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목욕빨래방의 꿈은 이뤄졌다. 교회는 오는 19일 공식 오픈할 목욕빨래방을 2시간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샤워 30분, 필라테스 30분, 상담 1시간이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움츠러든 육체를 쭉 펴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라테스 체조를 배우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것. 목욕빨래방엔 가능한 거울을 많이 걸 예정이다.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살라는 격려다. 세탁기는 100원 동전을 넣어야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공짜’가 아니라 스스로 돈 내고 쓴다는 마음을 주려는 것이다.

이 목사는 “단순히 씻고 빨래하는 곳이 아니라 힐링, ‘영적(靈的)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정체성과 자존

감을 높이려 했다는 뜻이다. 4개월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노숙인 윤 모(62)씨는 목욕빨래방을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10년 숙원을 해결한 이 목사는 잠시 ‘드디어 목욕빨래방 주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고 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고, 목욕빨래방 역시 주님의 일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는 11일 오전 9시 한강시민공원에서 노숙인 돕기 금금 마련을 위한 거북이마라톤대회를 연다.

/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이 기사는 11월 10일 조선일보 A23면의 기사를 담당 기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3~4).

그 빛이 해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어둠과 그늘에서 나와 해맞이를 합니다. 천년 세월 빛과 바람, 고난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고 땀시다. 걸을 수 있을 만큼 걷고, 땀 수 있을 만큼 땀시다. 우리 모두 함께! 누구라도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는 이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끝까지 갑시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지라도 다시 한 번 일어나 길을 갑시다.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뒤쳐져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거북이처럼!

우리는 이미 거북이처럼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역에서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렸고, 한 평의 땅이 없을지라도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사랑의 농장’을 10년 일구고 있고, 비록 작을지라도 ‘해맞이대학’을 세워 7년

여 지속해왔습니다. 목욕빨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100원, 500원 헌금을 해왔습니다. 남들이 지어준다 하더라도 감사하지만 마다하고, 먼저 우리가 헌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작은 불꽃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 산마루서신 가족들과 못 성도들이 힘을 모아 4억여 원의 비용으로 ‘베데스다 힐링센터’를 세웠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목욕하고, 빨래하고, 운동하며, 몸을 교정하고, 상담사와 의사 선생님들도 동참하여 노숙인들이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인적 치유센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세워지는 기적의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7년간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자립자활을 위한 ‘해맞이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노숙인과 꿈을 가진 젊

은이와 사람의 멘토가 함께 하는 예수사랑 공동체입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노숙인들이나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1시간이면 찾아와 쉬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날 포천에 세웠던 공동체에서 절반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거북이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키우고자 백두대간 강원도 평창에 공동체를 세우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순종케 하여 고난의 한반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분단의 이 땅을 주님의 평화가 실현되게 하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저 백두대간 숲속 산마루에서 온 누리에 주님의 평화를 꿈꾸게 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일

어나 함께 가시죠.

1평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하여 1만평으로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10만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핏줄이요, 영혼의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땅, 우리 모두의 영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5-21).

후원: KEB하나은행 261-910261-23607
(산마루공동체 이주연)
문의: 02-3273-0891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은 누구나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더욱 강하게 항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경우에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의도하시고 뜻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13~14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16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일관된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도와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전히 이루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난 없이 세상의 악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세상의 악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온 고난을 친히 그 아들이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

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우리 속에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을 선택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12~13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연단의 불입니다. 말라기 3장에 ‘은을 연단함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불입니다. 영광로에 금속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투명한 물처럼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이 임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 멸망의 불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불이요,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불입니다. 왜 연단의 불이 필요할까요? 심판의 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17~18절).

심판의 불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불, 정결케 하는 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살리기 위한 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끝나면 불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불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쏘아야 할 비전이 있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고, 타오르는 열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임재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불은 그냥 연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불을 통과한 자들이 임재의 불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에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히 12:29).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로 태우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아름답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더욱 정결해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무게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오직 영혼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혼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19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13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16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만큼 영광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도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삶에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많은 소유, 권력, 명예, 육체적 즐거움으로 영광의 무게를 채우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다섯 가지 행복의 비밀

관계, 예수님 성품 닮기, 예배, 감사, 사랑
누구나 꿈꾸는 행복, '사랑을 실천하는 여정'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확증해 주심을 경험할 때 기쁨과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자신이 왕이 되면 자아는 비대해지고, 고민과 갈등이 밀려오면서 결국 행복하지 않게 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소그룹 인도와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돌보며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체험하고 깨달았다. 그 다섯 가지 행복의 비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행복은 관계 속에 숨어 있다

이 땅에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은 '관계'이다. 필자는 암과 백혈병 전문의사로 근무하면서 치료가 잘되어 완치되는 경우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돈을 벌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때 "OO와 관계를 더 잘할 걸", "OO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OO에게 정말 미안하다" 등의 말을 한다.

관계는 서로의 친밀함에 기반을 둔 관심, 사랑, 지지, 긍휼함 등에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기쁨 한가운데 행복을 넣어주셨고, 그 행복은 관계에서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에 웃고 관계 때문에 운다.

좋은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 열려있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 즉,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족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번번이 남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 결과 관계를 포기한다.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한계를 늘 고백하며 정직하고 진술해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꾸준히 구하면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며 소통이 시작된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로 만남

을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로 관계 맺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만나야 한다.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 가장 특이한 비유 하나가 '누룩 비유'이다. 누룩은 미미하고 심지어 하찮아 보인다. 그러나 누룩은 빵을 맛있게, 부드럽게, 향기롭게 만들어준다. 누룩을 통한 천국 비유를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 집중해 보라. 놀라운 친밀감이 쌓일 것이다. 관계가 견고해지고, 충만해지며, 자연스레 행복이 따라오게 된다.

나는 연구실을 청소하는 도우미분들이 들어오면 의자 등 집기를 치워 청소하기 편하게 협조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렇게 수년간 관계를 맺어왔고, 어느 정도 친

밀한 관계가 되자 서로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말도 주고받게 되었다. 직장에서 일적으로 만났지만 일 이상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비록 이력서에는 남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화로 여기며 살고 있다.

예수님의 성품 닮기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는 일상에서 상처를 받았다 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프라이드(자존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고 여유를 갖고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순종과 희생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기에 하지 않는 것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순종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순종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언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하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탈피하여 심화단계로 나아가야 한다(히 6:1).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닮은 성품으로 바뀌면 우리의 언행도 당연히 바뀐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골 3:17)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고 강조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포함하며, '주께 하듯'이란 말은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교회 사역자는 사역지



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다. 혹시 직장 상사에게는 잘하지만 아내나 자녀, 혹은 편의점 직원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에서는 휴지를 줍지만 공원에서는 쓰레기를 버린다면 행복한 자의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예배 그리고 찬양

인간은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이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며 영원한 시간의 대부분을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며, 천국의 행복한 삶을 미리 사는 것이다.

예배는 감사, 찬양, 기도, 헌금 등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다.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만 집중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주일예배 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외롭고 지칠 때, 주변의 여러 적에게 공격당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하늘과 땅 끝에 거하든,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구했다(시 139:7-10). 이처럼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들은 어느 장소, 어떤 시간이건 그 자리와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된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예배에서 찬양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울한 마음이 물러가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 찬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는 밤에 자다가도 찬양했으며, 찬양하려고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시 139:9, 148:3).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이 필요했으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선 예배 자체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초월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고 했다.

나는 지난여름, 손자들과 동해안에서 며칠 동안 휴가를 보냈다. 어린 손자들은 해변에서 조개껍질(패류)을 줍고 있었다. 조개랑 소라껍질이 신기했는지 한동안 이것저것 주워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양손에 가득 쥐었다. 자신들의 손이 가득차자 내 주머니와 손에 맡기기 시작했다. 손자들은 계속해서 보화(패류)를 줍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나타났고, 아빠를 본 손자들은 자신이 쥐고 있던 보화를 집어던지고 아빠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다. 보화와 같이 여겼던 일상, 일, 계획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풍성한 감사

우리 모두는 적신(赤身, 벌거벗은 알몸뚱이)으로 태어났고, 결국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간다(욥 1:21). 적신과 적신 사이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재능과 경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영위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열 명의 나병환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눅 17:11~19), 치유된 열 명 중 오직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한 명은 평생을 감사 가운데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나머지 아홉 명은 다시 불평의 일상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불평이 많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 불평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집니까?”라는 항의 가득한 태도와 마음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없다. 그러므로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믿어야 한다. 필자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장하고 성숙했던 시간들은 행동했던 때가 아니라 삶이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기원전 7세기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왕국의 힘이 점점 커져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남유다를 향해 경고 및 예언을 한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항의성 질문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안녕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여호와로 인해 족하다는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리고 있다. 힘든 고난과 시련에 처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삶의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흐뭇해하시며 더 많은 감사거리로 풍성히 되돌려 주신다. 마치 어버이날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의 이마에 있는 주름이 펴지고, 자녀들 때문에 겪었던 수고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바뀌며 자녀들에게 더욱 잘해주고 싶어지는 것처럼 더 크고 풍성하게 되돌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서로 사랑하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7-40).

삶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신앙의 깊이와 넓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됴는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묵상’을 통해 알아 가는 것이다. 그분의 성품, 감정, 행위, 우리

를 향한 계획 등을 잘 알아가야 한다. 동시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갈 때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기 스위치와 같이 우리가 잘하면 켜지고, 잘못하면 꺼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최대(maximum)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분은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며, 애듯한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이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그 다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있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을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없을 때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풍성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게 된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다(마 6:9).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나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남매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이다. 자녀인 우리가 다른 자녀인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사는 것이다.



성주명 장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 <뒤늦게 찾아온 행복> 저술



지난 9일 열린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서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세우고, 배우고, 친구가 되라”

2017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GMLF가 공동주최한 ‘2017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설악 컨벤션스타호텔에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 조나단 봉크 박사(GMLF) 등 국내외 해외 선교단체 대표 및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2017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은 이주민과 난민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

에게 배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는 물론 북미, 유럽, 아프리카 대형교회 관계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선교리더십들은 ‘이주민과 난민선교’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논의하고, 발제하고, 회답하고, 토의했다. 4일 동안 14번의 발제와 회답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이라크, 케냐, 미국, 한국, 레바논, 남미, 요르단 등지의 이주민과 난민사역 사례 등을 발제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가 ‘온누리교회의 이주민사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목사는 길가에 쓰러진 한 몽골인 이주민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동생을 통해 몽골에 교회가 세워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온누리M미션에서 매주 외국인 2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주민 29명을 선교사로 본국에 파송한 사례도 발표했다.

신현승 장로(2000선교본부)는 이번 포럼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중등2부 노숙인 밥퍼사역

노숙인 무료급식단체 ‘참좋은 친구들’과 함께

서빙고 중등2부 학생들이 지난주 일(5일) ‘노숙인 밥퍼사역’을 실시했다. 노숙인 밥퍼사역은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이다.

이날 서빙고 중등2부 14명(담당 최성규 전도사, 중학생 10명, 교사 3명)은 25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배식했다. 노숙인 강홍렬 씨는 “중학생들이 와서 배식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면서 감사인사를 했다.

서빙고 중등2부는 매월 한 번씩 노숙인 밥퍼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했다. 중등2부 김예은 자매(14세)는 “노숙인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마음이 뭉클했고,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했고,

김수지 교사는 “학생들이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다시 봉사하러 올 때 정말 뿌듯하다”고 고백했다.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단체다. 1992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예수사랑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매주 주일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사장 신석출 장로는 “온누리교회의 섬김에 늘 감사하다”면서 “올겨울 노숙인들에게 전달할 방한복을 후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문의: 참좋은 친구들
(02-754-0031)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 세계관학교 개강

11월 15일 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온누리 세계관학교가 11월 15일 개강한다. 온누리 세계관학교는 12월 6일까지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온누리 세계관학교에서는 ‘세계관이란?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소비주의 vs 기독교 세계관’, ‘과학주의 vs 기독교 세계관’, ‘동양사상과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서울여대 교목), 정운오 장로(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성태연 교수(고려대 신소재공학부)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15-3661

풍성한 여성사역 가을콘서트

서빙고·부천 15일, 남양주 27명 예수 영접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주최하는 가을콘서트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소파 트리오와 챔버, 바리톤의 특수와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전도집회 ‘이야기가 있는 가을콘서트’를 개최한다. 11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막 오른다. 박종호 성가사가 출연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지난 1일 전도를 목적으로 가을콘서트를 개최했다. 백진주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연주와 간증이 이어졌다. 이날 전도대상자 50명 중 27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날 콘서트에 어머니를 초청한 석재연 성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201

부천 032-322-9686

크리스천 IT인들을 위한 예배포럼 ‘로그온’

11월 18일 오후 12시 양재 기쁨홀

11월 18일 정오 양재 기쁨홀에서 크리스천 IT인들을 위한 예배포럼 ‘로그온’ 행사가 열린다.

로그온 행사는 IT업계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영성회복 및 커뮤니티를 만드는 자리다. 온누리교회 소속 성도 중에서 IT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elogon.net)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이호수 사장(SK텔레콤), 박일환 집사(양천공동체)의 기조강연 등이 진행된다.

문의: 02-3215-3237

양지,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

12일 행복예감 콘서트, 19일 소목자행전

양지 온누리교회가 전도집회 ‘행복예감 콘서트’와 세미나 ‘소목자행전’을 연다.

행복예감 콘서트는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이웃들을 초청하는 전도 집회다. 오늘(12일) 오후 1시 45분 양지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소목자행전은 리더십들을 위한 세미나다. 차세대 교사, 학부모, 순

리더십들이 참석하면 좋다. 김도훈 교수(장신대 조직신학),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양금희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지 온누리교회 박모세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31-331-8171

11월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9일(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9월 10일~11월 4일 등록 성도

강남A	조옥순	김은경	서초A	정정후	문정준	정요한	김동우
김민정	최원석	정재웅	김무훈	최승범	송은영	홍은영	김성경
김태연	최정원	과천의왕	김정선	서초C	안재준	양재	김혜정
김태형	강남C	김은경	이행숙	김희선	홍정주	김태영	변서희
이영립	박인준	신준호	임정화	유현우	송파	유미자	이민형
강남B	손지영	분당B	차미정	이길자	구정아	이혜주	이지수
류지성	엄정원	이강훈	서초B	이중호	김예나	최지영	이진성
박소윤	조영권	제진산	김정미	장지은	김철민	최지혜	이화평
옥유찬	황희돈	산본안산	위성민	정규희	송병훈	한석옥	정찬일
윤 선	강남D	고혜련	이미희	서초D	이선화	홍성준	조해리
윤주익	김성호	이인순	전현정	김지영	이승준	푸른누리	지 청
					장성아		지재우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박정우 금세종 양중수 정찬희 오봉현 김진우 ■ 강서 백경옥 배상금 서민식 한광식 장형석 박범식 전우식 이석원 ■ 강촌 김은경 임산주 ■ 고양은평 김미경 정경애 손황익 김은식 이현아 신현숙 조은영 김재숙 ■ 관악극친 김성주 강부순 김영석 김지학 박미량 방혜영 박민석 이찬주 이한행 김민선 ■ 광명 송주희 박진아 조윤희 서은희 ■ 김포 김영삼 진승관 박준영 이정선 ■ 노원 김효성 김영순 ■ 동대문중앙 고영훈 이영환 채 민 성정대 천소영 염혜숙 ■ 동작 김영관 이종택		■ 영등포구로 고현우 김영대 고형복 김용만 문윤경 김찬숙 박미운 김임경 박재영 나상진 손재경 은성숙 이성주 정광렬 조금수 정현정 최미영 이경순 ■ 용산 김소영 노영주 유미란 박은주 이혜미 양은선 장태하 박미선 정세욱 김이성 최진영 박은주 황유정 함유민 ■ 이수 김화숙 김미양 ■ 이촌 강명관 박천호 고강지 박경애 권현자 인영옥 김찬준 김동연 박성근 박노곤 안선영 임경선 양미선 정순임 이월재 지승빈 이준호 최성원 이지영 최기영 최지영 김필승 ■ 일산 김용미 김영주 정태선 노전기 정하나 허덕영 ■ 중국어애배 정민영 선미영 ■ 중종로 권오석 박성호 김지연 정은주		■ 강남C 권오식 송기환 김미경 권은경 김성주 정재원 김정미 장정희 김태자 김성순 박영희 박주영 서동준 윤병석 이은한 오영은 임승민 유재자 전영도 오정균 홍신인 박종희 ■ 강남D 강민영 손은희 김대은 임상빈 석현수 김경순 손영태 권혁은 신경화 김희란 오병주 남형석 이가경 조옥환 이세훈 문상철 임혜련 정영옥 최용선 방병익 최윤영 이영옥 한규석 하태승 ■ 과천의왕 심은정 심주영 ■ 분당A 김신희 임애련 김수연 구정희 김지은 원현숙 유정순 이정현 이성능 유일철 이수현 박정남 이영년 유미경 이현석 최희재 이현숙 정도옥 장미라 이은경 전상호 이정옥 진경희 김순숙 최정미 이진우 한미정 김정란 한영선 조문주 ■ 분당B 서은숙 김정순 김수종 김임순 박선재 이태희 박영서 김소환 이옥련 김지수 이정수 김유진 장성창 이광조		■ 산본안산 김희광 최영한 이성숙 조영숙 ■ 서초A 김문정 윤종재 우지연 임명원 이행숙 강숙정 ■ 서초B 김은희 양점숙 박대우 김관식 신영림 권문숙 신영주 이은아 이루미 한경옥 이 철 이학일 하태호 정철윤 LEE JUNG HAN 이한경 ■ 서초C 김민섭 김찬우 김정희 이숙경 박성찬 임승섭 안홍식 신진식 조은서 이상희 ■ 서초D 김규리 방 현 김윤령 신예슬 송은영 김지영 안도현 구분영 임동진 윤현상 정문주 이동민 한종수 원외교 한종울 이승찬 ■ 송파 강은성 박용원 곽명애 정윤자 권정동 나점두 김경현 최희희 김옥익 최희혜 민태규 심형섭 박용진 장원규 신연수 최미란		■ Bridge33+ 권창수 김영태 김정희 현숙희 김지연 조주영 박초권 김성신 박현주 최현주 서은아 박예순 안혜성 강리영 엄정일 엄진용 이경옥 박영실 이성진 이원선 이윤화 정지연 이주향 김동철 임서균 최재훈 임재빈 고길범 장동성 이형성 조은성 김은주 ■ Point5 권유진 이은주 김나영 여혜승 김예은 인차영 김지혜 전영희 김현진 배정원 김화평 이승재 노진우 백인재 변경화 노애린 문승우 최윤정 우정수 한영우 이수민 장은숙 정현이 김경희 지은진 정윤선 하혜림 강필선 한보람 최진우 홍지수 박서영 ■ 대청 ■ 특별한초대 김미실 김영순 박백희 유경아 정현아 임해진 현하울 김도환 ■ 하나 문이지 김영주		■ 여호수아 강경애 이정희 강다윤 장덕희 강소희 김의영 김계리 김현경 김남희 이혜옥 김도형 이관철 김리나 윤지영 김보라 이신미 김성애 강리영 김영훈 김득택 김예은 조정희 김은지 이은향 김은환 조정국 김정아 고선미 김지혜 김승혜 김혜영 하소창 민희선 김재인 박지은 이한나 박지혜 조미혜 손승민 최정호 연현경 안미경 유소희 윤주영 유정식 이정구 이민정 이자훈 ■ 요셉 권민혜 홍정옥 김가는 이진숙 연선준 김영숙 이선주 박수경 한근루 박지선 ■ 하늘 배은서 이민정 왕지영 권민진		■ 허브 강다영 백영은 김단비 정미영 김보라 이지현 김성민 이혜정 김종오 노지준 김주희 최은영 박세환 김정민 박승우 손지영 서정웅 주희성 윤연경 송정은 이예린 김명의 임현석 윤원재 조은재 강신희 최연우 문규례 ■ CH630 이보희 김영숙 한 신 최 훈 ■ J4U 강원경 황정호 김보라 윤정숙 김은아 정문선 김지향 신지영 박은별 진윤아 ■ W 김혜연 송기현 박예양 성창섭 황유정 이상애 황은영 조은미		■ 백아람 황성주 안지영 김지현 오세준 이재학 이은경 박선향 장재원 김현태 황세원 변진숙 ■ Pole2 김재은 송명희 ■ SNS 김민선 김항기 박평화 장갑섭 이금옥 정성희 이민아 김향숙 이상은 김연희 이유빈 김정훈 이은정 최지윤 이정민 이규영 최 훈 유연삼 ■ 이슬 이지현 정다운 정동욱 정동욱 제민선 홍순주 홍정희	

